

The Gospel of Mark

Sermon 51 – Sermon Notes

Title: “Fig tree - part 2”

Scripture: Mark 11:20-26

Date preached: August 27th 2023

Scripture: Mark 11:20-26

20 Now in the morning, as they passed by, they saw the fig tree dried up from the roots.

21 And Peter, remembering, said to Him, “Rabbi, look! The fig tree which You cursed has withered away.”

22 So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Have faith in God. 23 For assured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be done,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24 Therefore I say to you, whatever things you ask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will have *them*.

25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also forgive you your trespasses. 26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es.”

20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21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 2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러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ere we are in Marks' gospel.

We have now entered the final week of the Lord Jesus' earthly ministry. The Passion Week begins on Palm Sunday with the Lord'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After visiting the temple He returns to his lodgings in Bethany. On the following day; Monday, Jesus returns to Jerusalem. On the way we read about the incident with the fig tree.

Finding a fig tree fully in bloom the Lord Jesus expected to find ripe figs. However upon closer inspection the tree was found to be barren. Jesus cursed the tree and then, followed by the disciples entered the temple complex. What happens nex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learing, cleansing or cleaning of the temple. We looked in some detail at this event last time.

The temple complex in Jerusalem would have been an amazing sight to behold. It was without doubt one of the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Perched on its mountain top setting its yellow white limestone and gold trim glittered in the sun. It certainly had the desired effect of wowing or awing all who saw it. It certainly impressed the disciples. Later in chapter 13 we read the following exchange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Then as He went out of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Teacher, see what manner of stones and what buildings *are here!*” (Mark 13:1)

This verse helps us to appreciate the impact that this massive and impressive piece of architecture had on people. You may well have had a similar kind of response to a building or monument. I remember going to La Defense in Paris and being very impressed by the buildings there.

So as the disciples looked at Herod's wonderful temple they were awed. However appearances can often be deceptive. Clearly whilst viewed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the temple appeared to be an impressive and holy place, dedicated and devoted to the worship of God. However this was merely a facade. Inside the temple system had become filthy and corrupt. Instead of being a place that was devoted to prayer, piety and worship it had become a place of business, profiteering and extortion. The circumstances around which the temple system operated aided in this.

Jewish pilgrims were required to make three annual visits to the temple. When they visited they would make an offering or sacrifice and pay the temple tax. It is of course difficult to travel a long distance with an animal for sacrifice. So a system had developed that allowed people to buy animals at the temple. There were also money changers that allowed you to change your foreign coins into a form that would be acceptable in the temple. In theory,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offering these services. They were a vital necessity for out of town visitors to Jerusalem. However in practice they had become very problematic. Firstly, human greed had captured the hearts of those offering these services. Instead of being fair and honest the sellers and money changers looked for ways to cheat their customers. Secondly, what really angered the Lord Jesus was where this practice was happening. The temple was supposed to be a place of prayer and piety. A place for people to come into God's presence and offer Him worship. Any place of worship should be arranged and designed to assist the worshipper in attaining the right spiritual attitude. A place of worship should not be full of adverts, promotions or other kinds of distractions.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in the Jewish temple. It wa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Gentiles to properly worship when part of their worship space had been designated as a market place.

Therefore Jesus set about righting this wrong. He drove the animal sellers from the temple and turned over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He prevented people from using the temple complex as a shortcut through the city. Simply put Jesus put a stop to anyone using the temple in a way that was dishonouring and disrespectful to God.

As you might imagine what the Lord Jesus did not go unnoticed. Many people were impressed and pleased by what He had done. We might assume that many felt the way He did about the temple, but lacked the courage to do anything about it. However the temple authoritie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ere not happy. They made a lot of money from this system. Furthermore the last thing they wanted during a major feast when the city was jammed full of pilgrims was a rabble-rouser or a revolutionary. Someone who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Romans and threatened their positions of power and prestige. They got together and sought a way to destroy Jesus.

Following the cleansing of the temple the Lord Jesus left and returned to Bethany. We will shortly pick up the story on Tuesday of passion week. Before we do,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에 들어섰습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성전을 방문한 후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즉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예수님은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단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노란빛이 나는 흰색 석회암과 금색 테두리가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며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제자들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3 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은 어떠하니이까 하매 (마가복음 13:1)

이 구절은 이 거대하고 인상적인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건물이나 기념물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파리의 라 데팡스에 가서 그곳의 건물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헤롯의 훌륭한 성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종종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부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은 인상적이고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쳐지고 봉헌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관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제도 내부는 더럽고 부패했습니다. 기도와 경건과 예배에 바쳐진 곳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고 강탈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유대인 순례자들은 매년 세 번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방문할 때 헌물이나 제물을 바치고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칠 동물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외화를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제도는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하지 않고 판매자와 환전상은 사람들을 속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화나게 한 것은 이러한 관행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기도와 경건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모든 예배 장소는 예배자가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배 장소는 광고, 판촉 또는 기타 방해 요소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의 일부가 장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물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전 단지를 도시를 통과하는 지름길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고 무례하게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일에 감명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예수님처럼 느꼈지만 그러한 일을 할 용기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당국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도시가 순례자들로 가득 차는 큰 절기 동안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선동가나 혁명가였습니다. 로마인들의 관심을 끌고 자기들의 권력과 위신을 위협할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주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곧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 Now in the morning, as they passed by, they saw the fig tree dried up from the roots.

It's Tuesday morning. Mark now begins his record of what occurred on this momentous day. In terms of what is recorded it is the most detailed day of passion week. Mark's account of all that transpired extends all the way to the end of chapter 13.

Jesus and the disciples are once again going to make the journey from Bethany into Jerusalem and end up in the temple. As they are walking along they pass the fig tree from the previous day. Mark tells us that it was **dried up from the roots**. This detail is significant.

As I've told you before I have “black” rather than “green” fingers. Give me a plant or flower to look after and in no time at all I can kill it. It's just a gift I possess. However even I cannot completely destroy a plant in a single day. The plants I kill wither slowly, getting sicker and more limp over time until they finally expire. But here the fig tree's demise is instantaneous. Jesus had cursed it on Monday saying that no one would eat fruit from it again. Here we are on Tuesday and Jesus' words have come true. The tree is ruined.

Also from a deeper spiritual meaning the mention of the roots is important. We know that trees extract the nourishment and nutrition they need through their roots. Where does a nation derive its spiritual nourishment? Through its priestly class. Pastors and priests look after, nurture and feed their flocks. They are like the roots that support the growth and health of their congregations. I feed you God's Word and you are nourished spiritually and grow. At least that is how God intends things to be. However as we have seen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ish people were failing in their duties to the people. They were not providing what was needed. The religious roots in Israel were rotten. Therefore the whole nation would wither and die just like the fig tree.

There is also another important connection involving roots and the temple's foundation. A tree's roots are its anchor and foundation. It can only stand because its roots are firm and solid. Equally, a building, like the temple also can only stand because its foundations are solid. We know what would shortly happen to the temple in Jerusalem. The Lord Jesus predicted the fate of the temple in Mark chapter 13.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Do you see these great buildings?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Mark 13:2)

So just like this fig tree soon the very roots of Judaism would wither when in 70 AD the Romans literally dismantled the temple brick by brick. Let us continue.

20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는 이 중대한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고난 주간 중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날입니다. 이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13 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전날의 무화과나무를 지나칩니다. 마가는 그것이 **뿌리에서부터 말랐다고** 말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저는 "녹색" 손가락이 아닌 "검은색"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볼 식물이나 꽃을 주면 그것들은 금방 죽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하루만에 식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이는 식물은 천천히 시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말라 비틀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의 죽음은 순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아무도 그것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지금은 화요일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한 더 깊은 영적 의미에서 뿌리에 대한 언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 필요한 양분과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서 영적 자양분을 얻습니까? 사제들을 통해서입니다. 목회자와 사제는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고 먹입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장과 건강을 지원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당신은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뿌리는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민족이 무화과나무처럼 시들고 죽을 것입니다.

나무 뿌리와 성전의 기초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닻이자 기초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과 같은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지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13 장에서 성전의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가복음 13:2)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처럼 서기 70 년에 로마인들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때 유대교의 바로 그 뿌리가 시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합시다.

21 And Peter, remembering, said to Him, “Rabbi, look! The fig tree which You cursed has withered away.”

Peter, who else speaks up. It is only in Mark that this detail is recorded. Remember that Mark's gospel is largely based on the testimony of Peter. So as Peter is retelling the story to Mark he recalls that it was him who noticed the withered tree and mentioned it to Jesus.

We might assume, that as on other occasions that he is speaking up on behalf of the disciples as a group. Peter's astonishment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trees' demise came about so rapidly. They probably should not have been surprised. They had after all been witnesses to far greater instantaneous miracles. Let us read on.

21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

역시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베

드로의 간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른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언급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움은 나무의 죽음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즉각적인 기적을 목격했었습니까요. 계속 읽어 봅시다.

22 So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Have faith in God. 23 For assured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be done,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As I have previously explained there was a deep symbolic significance in the withering of the fig tree. It represented the fate of Israel who had failed to produce the fruit God expected. Here however Jesus does not dwell on that. Instead, He uses what has happened as an object lesson regarding faith and prayer.

Why we might wonder did he not take the time to explain the symbolic meaning of this act? It was after all a very important lesson and one the disciples needed to hear and heed. Perhaps it was because the disciples at this particular time were unable to take, or bear this truth (John 16:12). To learn that the temple and all it represented was shortly to end would simply have overwhelmed them. Therefore He preferred to leave the sad symbolic meaning to a later time, when they could better understand it.

The simple point Jesus is making is as follows; trust in God can accomplish humanly impossible things through prayer. As we read in the book of James.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 no doubting, for h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James 1:6)

2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데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일어난 일을 믿음과 기도 에 관한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고 제자들이 듣고 알아야 할 교훈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요 16:12). 성전과 그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슬픈 상징적 의미를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음 기회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야고보서 1:6)

This is a vitally important truth that the disciples needed to absorb. Soon the Lord Jesus would be leaving them. Up until this point He had always been there helping and guiding them. Soon they would be alone. When hard times, doubt and persecution came as it surely would they would need to remember the power of faith and prayer.

Recently I watched an interesting video about the house church movement in China. An American pastor had visited China and spoken to a house church that had 22 members. He asked them how many of them had been imprisoned at some time for their Christian faith. Eighteen of the people present raised their hands. I have to say it deeply convicted me. These people had been imprisoned for being a Christian, but on release had gone right back to the church and carried on worshipping God. What the pastor said next I found to be even more convicting.

He said that these people were willing to go to a horrific Chinese prison for their love of Jesus but, that most Christians in the west however were not even willing to visit their neighbours to talk about their love of Jesus. Think on that for a moment. How do we use the freedom that God had given us? The sad truth is that most of us are weak and ineffective when it comes to sharing our faith. The important question is why? Why are Christians in the west and in other places that don't face persecution so ineffective? The answer is simple, we lack real faith. You can read many detailed explanations of what faith is, and later on I will talk about some of these. But for now let's keep it simple. Fait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rust God. Trust God that He can and will do what is asked of Him and don't doubt. The Christians in the Chinese house church trust God. They trust that whatever happens to them is His will, that it is done for His glory.

If they live they may be an effective witness and bring Him glory. If they suffer and die they trust that He will draw them to him as He has promised.

The Lord Jesus goes on to explain why faith exercised through prayer is so effective. It's really incredibly simple. It's because when you pray you are communicating with the all sovereign, all powerful, all seeing, all knowing God of the universe. So if He wants something accomplished He can and will make it happen.

Let me give you an earthly example to explain what I mean. Let us suppose that you are good friends with a group of weight lifters at a local gym. Huge muscular men and women able to comfortably lift and move heavy objects. Let us now imagine that you are about to move house and you need to shift your sofa, washing machine and wardrobe into the moving truck. Who would you call for help? Your weight lifting buddies of course. To them moving a sofa is very easy. I'm sure you get my point. Whatever problems or issues you have in life God is only at the other end of the prayer "telephone."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faith. Faith, which in Greek is the word *pistis* occurs 244 times in the New Testament. It's a word that is foundational for Mark even though he only uses

the word five times in his gospel. For Mark faith means having unswerving confidence that the power of God is at work in Jesus. Mark also demonstrates that through this power Jesus is able to heal and transform those who seek God's help. But, and this is what is important here Jesus is teaching the disciples that faith in God can allow the disciples to accomplish many amazing things, just as He had done. Or more simply put, Prayer enables us to tap into the same power source that was behind Jesus.

The Lord Jesus then goes on to give them an example of the power of faith in prayer. He tells them that faith in God will enable a person to move a mountain. This vivid illustration is used as an example of something that is impossible for a human being to accomplish. To speak of a "mountain" was a popular figure of speech in Jesus day to describe any insurmountable problem. What an amazing and life transforming thought that is. That through the power of prayer we are able to overcome insurmountable problems. Whatever problems, issue or worries you have take them to the Lord in prayer.

As I prepared this I thought of Joseph Scriven's wonderful hymn,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ow me to read the first verse to you.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So I encourage you to take up his advice. Take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것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곧 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돕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곧 그들은 혼자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심과 박해가 닥쳤을 때 그들은 신앙과 기도의 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중국의 가정교회 운동에 관한 흥미로운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한 미국인 목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22 명의 교인이 있는 가정교회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물었습니다. 참석자 18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투옥되었지만 석방되자마자 바로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 더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끔찍한 중국 감옥에 기꺼이 가지만 서양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해 말하기 위해 이웃을 방문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믿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약하고 비능률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박해를 받지 않는 서양과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비능률적일까요? 대답은 간단한데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 중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것임을 의심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면 효과적인 증인이 되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분께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우주의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역 체육관의 역도 선수 그룹과 좋은 친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거대한 근육질의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이제 이사를 하려고 소파, 세탁기, 옷장을 이사 트럭으로 옮겨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신의 역도 친구들이겠죠. 그들에게 소파를 옮기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로 **pistis** 라는 단어인 믿음은 신약에서 244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다섯 번만 사용했지만 마가에게는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마가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견고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또한 이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예수님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놀라운 일을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통한 믿음의 능력에 대한 예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생한 삽화는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의 예로 사용됩니다. "산"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대중적인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걱정거리가 있든지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이것을 준비하면서 Joseph Scriven 의 멋진 찬송가인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 짐 맡은 우리 구주”를 생각했습니다.

1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예수님과 같은 친구 어디 또 있는가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우리 모든 죄와 슬픔 짊어지신 분
What a privilege to carry 얼마나 귀한 특권 우리 가지고 있는가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기도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으니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 잃을 때 너무 많고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쓸 데 없는 고통 안고 살 때 얼마나 많은지
All because we do not carry 그제 다 우리 짐 맡기지 않기 때문이네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기도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Now there is a certain presupposition here in what Jesus is saying. It's very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what He means when He tells us that the things we ask for will be done, and the things we ask for will be given to us. Let us imagine the kind of prayer some people might pray. Dear God, I'd like an apartment in Gangnam, a sports car and a my own luxury yacht.

This might be how our prayers went if we were motivated by our own carnal greed. So the Lord Jesus' presupposition here is that our prayer requests are fully in line with God's will.

We are not praying our shopping list of what we want. A truly devoted and committed Christian can only ever pray that God's will be done. Remember the Lord Jesus here is speaking to men who have given up everything to follow Him. Mark was writing to Roman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torture and death for their faith. It was only much later that the notion of nominal believers or “Christians in name” only took hold.

Today sadly Christians are sometimes taught that they have a right to ask God for whatever they want. The proponents of the prosperity gospel teach that faith and prayer empower people to lay hold of physical and material blessings in this life. This is not of course in line with what

scripture teaches. So what Jesus is telling the disciples is that when their prayers are in line with God's will they can trust that God will answer their prayers. Let us read on.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강남 아파트, 스포츠카, 나만의 호화 요트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탐욕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전제는 우리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쇼핑 목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는 신앙 때문에 고문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또는 "이름뿐인 기독교인" 같은 개념이 자리를 잡은 것은 훨씬 이후입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배웁니다.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 지지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현세에서 육체적, 물질적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힘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4 Therefore I say to you, whatever things you ask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will have them.

What a wonderful assurance this is for us coming from the lips of our Lord and saviour. However don't forget what I just said. This verse is not telling us that our "faith" informs God about what to do. It is also not teaching us that God is obligated to say "yes" to any prayer request given in faith and without us doubting. Or as some people believe, that if you pray hard enough and *really believe*, that God is again obligated to answer your prayers. God is sovereign, and not us. We don't control God, and we certainly cannot manipulate Him so that He gives us what we want.

So we might better think of the Lord's words here as a wisdom saying, or a memorable maxim that reminds us of the power of prayer. In all situations we are to pray with faith and without doubt that God is able to answer our prayers and give us what we ask. However there is a caveat to this. Let's read on and discover what that is.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나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알려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그분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의 힘을 일깨워주는 기억에 남는 격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5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also forgive you your trespasses.

What position do you take to pray? You may sit, kneel, stand or lie down. I typically pray sitting at my desk in the morning and lying down in bed before I sleep at night. So it's a worthy question to ask. Does it matter what position I take to pray? The answer is no. This is because one's external positioning or pose is largely irrelevant. Obviously we want to pray in a respectful and dignified pose. But God is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posture of your heart. What He cares about is that your heart is bowed in submission to the lordship of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he Jews commonly stood when they prayed (see 1 Sam. 1:26; Luke 18:11). This was a cultural thing and as I just pointed out the position we take for prayer is not so important.

Here we learn from Jesus that answered prayer is not only conditioned on faith. We do need faith but we also need forgiveness. How easy it is for us to harbour grudges and anger about people in our hearts. How we allow that bitterness and hatred to fester and eat us up inside. We might think no one else knows about it but we are mistaken. God knows about it, and it impacts His response to our prayers.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When we truly reflect upon God's gracious gift of salvation it cannot leave us unchanged. When you really appreciate that God sent His precious, perfect Son to die a horrendous death for someone as miserable and wretched as you how can that leave you unmoved? We know the nature of our hearts.

We know how dark and evil our thoughts are. And yet Christ died for us. Knowing how God forgave you how can you not extend that forgiveness or grace to others? Grace of course is

undeserved merit. It is giving to someone something that they do not deserve or have not merited. God extends His grace to us, and we are to extend it to others. We might feel the other person is not sufficiently sorry for what they did. We might feel they are not really deserving. But we are to forgive them regardless.

Let us conclude today by looking at verse 26.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거나, 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는 책상에 앉아 밤에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지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장소나 자세같은 외부적인 요소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자세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 있었습니다(참조 삼상 1:26; 눅 18:11).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었고 방금 지적했듯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서도 필요합니다.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품기는 쉽습니다. 그 쓰라림과 증오가 우리를 곪게 하고 안에서 부터 우리를 갇아 먹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며,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진정으로 묵상할 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은 비참하고 죄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귀중하고 완전한 아들을 보내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 용서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갑없이 주신 공로입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 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6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es.”

Before concluding here I should point out that there is much debate surround the authenticity of verse 26. It does not appear in the earliest and best manuscripts we have of the New Testament. Many scholars think it was added by a scribe later. This may have been because they associated the preceding verse with Matthew 6:14

“For if you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Even if we question this verses inclusion here it does teach us a valuable lesson about the importance of forgiveness. If we remain hard-hearted towards other people who may have sinned against us, and especially our brothers and sister in Christ what does that tell us? Perhaps that we have not really experienced God's grace at all. This may be why you stubbornly refuse to forgive others. You do not really know God's gracious gift of salvation. Without confessing your sins, seeking God's forgiveness and trusting completely in Christ you are not really forgiven. So in this respect when we are willing to forgive it shows that we fully understand God's grace and it serves as a sign that we are forgiven and loved by God.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see Jesus' authority again questioned by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끝마치기 전에 26 절의 신빙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초창기 및 최상의 신약성경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나중에 서기관에 의해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 구절을 마태복음 6:14 과 연관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마태 6:14)

우리가 이 구절이 여기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수 있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꺼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징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Power and authority through prayer

Let us consider what today's portion of scripture is really teaching us. It is teaching us that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granted some of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He enjoyed through prayer. The Lord Jesus was as we have seen was a man of prayer. He prayed to the Father without any doubt that the Father heard and granted His requests. We too are invited and encouraged to use that power.

Prayer is real and powerful. It is something we should utilise much more effectively in our Christian lives. Today's passage of scripture highlights three things.

1 That God answers prayer. He graciously gives to His people a power that can move mountains. A power that enables them to do unimaginable things when they align with His will.

2 In order to experience this power we must maintain a bold faith in God.

We must believe without doubt that He answers prayers and unleashes His strength upon those who trust in Him.

3 There must be peace and forgiveness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and by extension the Christian community.

God's power and authority will not be given to those who remain hard-hearted and unforgiving.

Let us then tap in and utilise the power of prayer.

1 기도를 통해 오는 능력과 권세

오늘의 성경 구절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누리셨던 능력과 권세의 일부를 우리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하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권능을 사용하도록 초대와 격려를 받았습시다.

기도는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그의 백성에게 은혜롭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3. 믿는 자의 마음과 더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에는 평화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활용합시다.

2 To forgive or not forgive?

I want to tell you two stories about forgiveness. One negative and the other positive.

On July 7th 2015 London experienced a terror attack. Various parts of London's transport network were targeted by Islamic terrorists. The attacks left 52 people dead and many more injured. Among those killed was 24 year old Jenny Nicholson. Her mother Julie was a priest in the Church of England. Someone one would expect to know and preach about the importance of forgiveness. Now obviously what she experienced is something none of us Lord willing will ever have to endure. To lose a child like that is unimaginable. However Julie remained adamant that she would never forgive the man whose bomb killed her daughter. She remained defiant and actually stepped down from her role as a parish priest. After all she could hardly stand in the pulpit and preach about the necessity of forgiveness when she didn't practice it herself. Today, when you hear her speak you hear someone who is still seething with hatred and rage. Someone who remains angry and bitter towards God and the world. By contrast let me tell you about Mary Byrd.

In February 1993 in Minnesota 20 year old Laramium Byrd was shot and killed during an argument at a party. Laramium was Mary's only child and understandably she wanted the man responsible arrested and jailed. She thought of him as being an animal. He should be caged and the key thrown away. The man responsible was 16 year old Oshea Israel. He was arrested and sentenced to 25 years in jail. You might imagine that to be the end of the story. Think again. After a few years Mary felt a conviction. As a devout Christian she felt called to forgive her son's killer. She arranged a visit and went to meet him in prison. This became a regular thing. After 17 years Oshea had served his time and was released. Mary helped him find a place to live, next to hers and rebuild his life. Today they not only live close but they are close. Mary says that God helped her forgive her son's killer. She also said something very important.

"Unforgivingness is like cancer, It will eat you from the inside out."

So there we have the tragic stories of two mothers who lost their children in horrific circumstances. Both claimed to be Christians but their responses were very different. One clung on to her hate and let it grow and destroy her like a cancer. The other forgave and enjoyed peace

and freedom.

How do we respond when we are called to forgive? Who do we more resemble Julie or Mary? The reality is that really we have no choice. We are called to forgive. No matter what is done to us our only response must be to forgive. The reason we must find it in our hearts to forgive is that we remember how God forgave us. God in His grace showed us mercy. We therefore are called upon to do the same to others. This is not easy, so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aids us in this area.

2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2015년 7월 7일 런던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런던 교통망의 여러 곳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52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24세의 Jenny Nicholson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Julie는 영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녀가 경험한 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Julie는 자신의 딸을 폭탄으로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전적이었고 실제로 본당 사제로서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강단에 서서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녀의 말을 들으면 여전히 증오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예로 Mary Byrd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미네소타에서 20세의 Laramium Byrd가 파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Laramium은 Mary의 유일한 자녀였으며 당연히 그녀는 살인자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동물로 여겼고 우리에게 가두고 열쇠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살인자는 16세의 오세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Mary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녀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접견을 신청하고 감옥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오세아는 17년을 복역한 후에 풀려났습니다. Mary는 그녀가 사는 곳 옆에 그가 살 곳을 마련해주고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친밀합니다. Mary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도록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암과 같아서 당신을 안에서 부터 먹어치울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에서 자녀를 잃은 두 어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의 증오에 매달렸고 그것이 자라서 암처럼 그녀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용서하고 평화와 자유를 누렸습니다.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Julie** 또는 **Mary** 중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령님께서 이 분야에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합시다.